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6월 1일~6월 30일

대내경제 90

<공식경제>

휘발유 및 공산품 가격 오름세
북한, 자체개발 스마트폰 '진달래3' 공개

<주민동원>

북한, 가뭄 극복에 주민동원
주민 이동금지령 연장

대외경제 92

<대북제재>

UN안보리 대북제재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독자제재 및 이행 노력

<대외교역>

중국·러시아 북한지원 계속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북지원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공식경제>

RFA(6.3), VOA(6.23), VOA(6.27), MBN(6.29)

휘발유 및 공산품 가격 오름세

3월부터 시작된 북한 내 기름 값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는 보도임.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 봄 kg당 6천 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현재 1만 5천원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또한 미국의 'AP 통신',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을 포함한 복수의 소식통은 휘발유 가격이 올 3월에 비해 14~20% 급등했으며 평양 시내 주유소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소속 차량에 한해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름 값 상승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휘발유 값 오름세에 따라 북한 내 공산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중국산 공산품의 수입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내 공산품 가격 상승은 현재 휘발유와 경유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람과 물자의 유통 제한이 공산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

북한, 자체개발 스마트폰 '진달래3' 공개

'아리랑'과 '평양터치'에 이어, 북한의 만경대기술정보사에서 국산화된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 '진달래3'을 개발했다고 공개함. 손전화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진달래 3'의 외형, 구조설계, 핵심요소인 주기판의 장치회로설계, 조작체계 프로그램 설계 등 모든 요소들을 국산화 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스마트폰 자체 개발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보도임. 실제로 북한은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중국 화웨이 제품에 '조선', '평양'이라는 상표를 부착해 판매 한 적이 있으며, 무역 통계를 보더라도 북한의 대중국 스마트폰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올 들어 5월까지 북한의 중국산 손전화 수입액은 약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00%나 증가했다는 보도임.

〈주민동원〉

News1(6.29), KBS(6.29, 6.30)

북한, 가뭄 극복에 주민동원

지난 4월부터 지속되는 가뭄에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주민들과 군인들이 밤낮없이 수로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임. 노동신문은 ‘온 나라가 가뭄과의 투쟁에 총동원, 총집중’이라는 기사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황해남도를 현지시찰 하였고 군인과 민간인, 어린 학생들까지 총 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2만 4700여 정보의 논과 밭에 물주기 동원이 진행 되었다고 보도함.

주민 이동금지령 연장

북한 당국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주민 이동 금지령을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은 4월은 김일성 생일 행사를 구실로, 5월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 6월에는 농촌동원과 가뭄막이 구실로 주민 이동을 막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처럼 장기간 이동금지령을 내린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전함. 주민들의 이동 금지는 장마당을 통한 물류와 자금의 회전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RFA(6.1, 6.21) VOA(6.5, 6.27), 경향신문(6.19), 서울경제(6.29)

UN안보리 대북제재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독자제재 및 이행 노력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21일 미중외교안보대화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어떤 북한 기관과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함. 노르웨이 정부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노르웨이 자국민과 단체의 북한 무기 산업, 항공 우주 산업, 화학 및 정유 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으며, 프랑스도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마련 중이라고 밝힘.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중국 당국도 지난해 접경 지역인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기업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 정지를 비공식 지시한 것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서히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달러, 양으로는 750만톤 이하로 제한함.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대북제재 결의의 상한선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고,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4월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0'을 기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 교역은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었으며,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의 12%에 불과한 2천 660달러에 그쳤다고 전함.

<대외교역>

VOA(6.1, 6.5, 6.7, 6.9, 6.20) 매일경제(6.7, 6.26), RFA(6.23), 동아일보(6.26)

중국·러시아 북한지원 계속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경제사업은 민간 양 분야에서 활기를 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화물 항로를 개설하였으며 러시아 언론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라진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이 개시된다고 전함. 또한 양국은 라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노선의 운송량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동 사업은 본래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었으나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한국이 참여를 중단한 이후 북-러 양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대북제재에도 라진-하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2020년까지 양국 교역을 10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함. 양국 간 1분기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 증가했으며, 특히 대북 에너지 관련 수출이 3천 141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증가했음.

중국의 경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하였지만, 철광석 수입액이 크게 늘고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대함.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이래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3월과 4월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7%, 40.8% 감소.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유엔 제재결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4배인 2천 26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대북 항공유 수출도 올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5% 증가한 1천 50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북중 접경 밀무역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됨.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트럭들은 하루 2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작년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하였으며 급증한 화물량에 중국 해관 당국의 화물 검사 방식도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짐.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보따리장수’들이 생필품을 활발하게 밀매하는 실태가 보도되기도 함. 현금에서 곡식, 자동차 부품,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밀무역은 이윤이 높아 국제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하고 있음.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규정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밀수가 성행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됨. 관련 무역업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중 국경의 비공식 무역은 공식 무역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됨.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북지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16 세계 투자현황’에 따르면 2016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약 9천 300만 달러로 추정됨. 이는 2015년보다 13% 가량 늘어난 액수이나 총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 하위권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중국 자본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대북 추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2천 6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감소했으며, 이 중 식량안보와 영양 지원 사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6.1, 6.13, 6.16, 6.23)

아래 표는 6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프랑스 정부	2017년	지원금	21만달러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
영국 (북녘 어린이 사랑)	2017년 6월	밀가루	40톤	해당 기관에서 세운 빵공장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밀가루 지원
미국 (라이즈 어겐스트 헝거)	2017년 5월	영양 쌀	28만 5천 끼	미국 구호단체가 지원하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2017년	메주콩, 말린 국거리	메주콩 100톤 말린 국거리 23톤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두유를 만드는 데 쓰임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6.01] 프랑스, 대북 식량안보 사업 21만 달러 지원 (VOA)
- [2017.6.01] 북-중 접경 밀무역 여전히 성행...완전 단속 불가능 (VOA)
- [2017.6.01] 노르웨이, 대북 제재 추가 단행키로 (RFA)
- [2017.6.03] 기름값 상승 속 공산품 가격도 오름세 (RFA)
- [2017.6.05] 라진항 경유 북-러 경제협력 사업 활발 (VOA)
- [2017.6.05] '북한 석탄 수출 4월 전무' 유엔 집계 (VOA)
- [2017.6.05] 4월 미-북 교역 '0'...석달째 전무 (VOA)
- [2017.6.07] 중국, 대북 항공유 수출 급증 (VOA)
- [2017.6.07] 중러 북한지원 계속, 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매일경제)
- [2017.6.09] 지난해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13% 증가...총액 기준 세계 하위권 (VOA)
- [2017.6.13] 영국 NGO 방북... 북한 어린이에 밀가루 40톤 지원 (VOA)
- [2017.6.16] 미 NGO, 북한에 영양 쌀 28만 5천 킶 지원 (VOA)
- [2017.6.19] 중,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지시...사실상 '독자 제재' 시행 (경향신문)
- [2017.6.20]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22% 감소 (VOA)
- [2017.6.21] 미·중 "유엔 제재 북 기업과 거래 금지 재확인" (RFA)
- [2017.6.21] 프랑스 외교부 "대북제재 이행 강화.추가 제재 필요" (RFA)
- [2017.6.23] [평양은 지금] 휘발유 가격 2배 이상 올라 (VOA)
- [2017.6.23]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100t 지원...올 들어 처음 (VOA)
- [2017.6.23] 북-중 교역량 최근 크게 증가 (RFA)
- [2017.6.26] 中, 北석탄 중단 여파 5월 대북수입액 32% 급감 (매일경제)
- [2017.6.26] 1~5월 중국 대북수출 32% 급증...경제제재에 '구멍' (동아일보)
- [2017.6.27] 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 중단...최고 수준 제재 유지 (VOA)
- [2017.6.27] 북한, 자체개발 스마트폰 '진달래3' 공개...국산화 여부 미지수 (VOA)
- [2017.6.29] 말레이시아, 北 노동자 노동허가증 발급 중단... 독자제재 일환 (서울경제)
- [2017.6.29] 북도 가뭄과 총력전...광영매체, 연일 '가뭄과의 투쟁' (News1)
- [2017.6.29] 北 '가뭄 투쟁'에 총력...컴퓨터에서 소달구지까지 동원 (KBS)
- [2017.6.29] 北신형 스마트폰 '진달래3'...애매하게 닮았는데? (MBN)
- [2017.6.30] 북한도 가뭄 비상...밤낮없이 주민 동원 (KBS)